



# 절경의 땅 가쓰라하마

MAP 4-E



남국의 눈부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바다. 류즈자키(龍頭岬)에서 류오자키(龍王岬)에 걸친 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있는 해변에는 다섯 색깔의 돌, 언덕 위 료마의 동상이 있으며, 달의 명소라고 읊어진 것처럼 방문하는 사람을 매혹적인 세계로 초대합니다.

바닷가에는 바다사자쇼를 볼 수 있는 수족관, 도사견 강아지와 어울려 놀 수 있는 도사견 파크, 고치의 특산품이 모여있는 토산품 센터도 있습니다.

## 위치

고치역에서 차로 30분  
노선버스(미나미하리마야바시  
(南はりまや橋)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  
'가쓰라하마(桂浜)' 행 버스나 MY유버스  
(P16)를 타고 '가쓰라하마'에서 하차

## Tosa Fiefdom and Samurai Culture

# 사카모토 료마

일본의 봉건 시대부터 메이지의 입헌군주국이 되고  
오늘의 민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길의 기선을 잡은 사람

막부체제 말기인 1835년 11월 15일 고치성 아래 혼초스지에서 상업을 하는 하급무사의 자녀로 출생. 어릴 때는 내성적인 울보였지만, 검술 수행으로 자기확립을 도모했다. 1861년에는 도사 긴노토(勤王党)에 가맹했고, 타 번 유지와의 교류나 막부의 신하 가쓰 가이슈(勝海舟)에게 사사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신분구축이 많은 번사(藩士) 신분을 버리고 탈번. 정책상사 '가메야마사추(龜山社中)'의 설립이나 '삿초동맹(薩長同盟)', '대정봉환(大政奉還)' 등 일본의 근대 체제로 이어지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했다. 그 직후, 1867년 11월 15일에 교토의 오우미야(近江屋)에서 동지 나카오카 신타로(中岡慎太郎)와 함께 습격당해 피살됨. 향년 33세. 3개월 후에 메이지 신정부 탄생. 자신의 출세를 추구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념에 근거하여 전진하는 료마의 삶에 대한 자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 료마가 태어난 마을 기념관

MAP 1-C



료마가 태어나고 자란 가미마치에  
개관. 료마의 소년시절을 영상, 음성,  
CG로 소개. 료마가 앉아있는 동상  
옆자리는 기념 사진을 찍는 포토존.  
다언어 음성가이드인 '펜도쿠'가  
있어, 영어·중국어·대만어·한국어의 4  
개국어로 안내 전시를 알기 쉽게  
해설해 준다.



## 위치

고치역에서 노면 전차로 15분.  
'가미마치 잇초메(上町一丁目)' 하차



## 사카모토 료마(坂本 龍馬) 기념관

MAP 4-E

사카모토 료마의 생애와 인간상을 소개하는 기념관.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가쓰라하마 공원의 언덕에 세워져 있으며, 료마 관련 자료정보센터의 역할도 합니다.



## 사카모토 료마(坂本 龍馬) 동상

MAP 4-E

료마의 공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고치현의 청년들이 전국에서 기부금 모금을 전개해 1928년에 세워졌습니다. 하카마에 부츠를 신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태평양을 바라보는 모습이 장대합니다.